

#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A등급'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추진

### 무주군,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 80억원 확보

무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난해보다 8억 원이 늘어난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실적과 집행률 관리 강화를 통해 평가 대응력을 높여 온 점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주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05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무주군 군립요양병원 건립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청년 귀농·귀촌 보급지리 조성 △반딧불 미디아아트 영상관 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총 267억 원을 집행하며 평균 집행률 88%를 기록했다.

이번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농 유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

고령자 특화 스마트팜 조성, 지역 내 생활 인구의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한 △신규 관광·체험 콘텐츠 운영 기반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해 연간 12명의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주~안성 고령자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족 친화형 키즈 무비·마켓데이 융복합 행사 △가족 영화여행 △덕유산 둘레길·김길길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 등 신규 콘텐츠도 운영한다.

관광 수요가 높은 반딧불이 신비탐사'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역시 연장할 계획이다.

김성욱 무주군청 인구협력과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추세 속에서도 무주군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망 중심'이라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조 변화에 맞춰 주민 수요를 반영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추진해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가겠다"며 "2027년도 투자계획 역시 전략적으로 수립해 기금 확보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군과 관심 지역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 진안군, 쾌적한 영업 환경 조성 위해 업체당 최대 600만원 지원

진안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화된 사업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 및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군비 9,6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점포 리모델링으로 △화장실 및 주방 개선, △도배·도색·바닥 공사, △전기 및 조명 공사 등이다. 특히 사업장 리모델링과 병행할 경우 간판 설치도 가능해 점포 외관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단순 집기 구입이나 기계 정비 구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진안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19일,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진안을 찾은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대표 선수단과 합동 훈련팀을 격려하기 위해 문예체육회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부터 진안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동계 훈련에 매진 중인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진안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 대표 선수단과 합동 훈련팀 소속 선수 30여 명이 머물며 체력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집중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진안군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에는 3개 종목에서 총 40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진안을 찾았으며, 2026년에는 태권도를 포함한 4개 종목에서 500명 이상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목표로 체육시설 무료 제공과 체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편의 제공에 나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동계 전지훈련 태권도 선수단 격려

진안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일 관내 주요 도로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지부장, 장수읍 환경미화원 등 1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생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을 수거하며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자주 제기됐던 구간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도로변과 인도, 화단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경을 지키는 것이 모두의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주요 도로·민원 다발지역 환경정화활동

장수군은 지난 19일 장수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다문화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107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설명회 실시

장수군은 지난 19일 장수군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수군가족센터는 지난해 12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지난 9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 총 12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이어 집담 여행사 선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정 가정들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는 고향나들이 일정과 지원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을 병행해 참여 가정들이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모국 방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가족센터는 이번 지원사업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고향나들이 사업에 선정된 다문화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107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지난 16일 열린 '2027년 공공비축미곡 품종 선정 협의회'를 통해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품종으로 '신동진'과 '해담쌀' 2개 품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총 14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품종별 재배 안정성, 시장 선호도, 농가 재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 품종을 결정했다.

선정된 '신동진'은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아 그동안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농가 신뢰도가 높은 대표 품종이다.

'해담쌀'은 품질 균일성과 상품성이 뛰어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으로

### 정신건강 취약계층 '생일 축하' 눈길

####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케이크·선물 전달하며 가족과 함께 축하

무주군이 보건의료원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홍찬표·무주군보건의료원장 겸임)를 중심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 대상자 55명을 대상으로 '생일 챙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정신질환으로 대인관계 단절과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자에게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

고,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로 운영된다.

홍찬표 센터장은 "학계 연구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기념일을 챙기는 정서적 지지 서비스는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등 정신건강 회복과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축하를 넘어 소외된 이웃에게 사회적 연결과 삶의 의미를 전하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 장수군, 202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신동진·해담쌀 선정

장수군은 지난 16일 열린 '2027년 공공비축미곡 품종 선정 협의회'를 통해 202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품종으로 '신동진'과 '해담쌀' 2개 품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총 14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품종별 재배 안정성, 시장 선호도, 농가 재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 품종을 결정했다.

선정된 '신동진'은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아 그동안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농가 신뢰도가 높은 대표 품종이다.

'해담쌀'은 품질 균일성과 상품성이 뛰어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으로



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품종 단순화를 통해 재배와 수확, 품질 관리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

진안군은 청년창업농 초기 영농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2~2025년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용자)을 실행한 청년 농업인이다. 사업은 정책자금을 실행한 이후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의 0.5% (20만원/원, 최대 3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에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대출원담을 달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를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2~2025년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용자)을 실행한 청년 농업인이다. 사업은 정책자금을 실행한 이후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의 0.5% (20만원/원, 최대 3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에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대출원담을 달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을 돕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를 추진한다.

특히 본인 세대 건강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우선 지원되며, 동일한 경우에는 ①영농경력이 짧은 자 ②영농규모가 작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창업농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영농 정착을 돕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며 "해당되는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